

일 주 문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3주년 범허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허경연님은 11월 23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관 3주년 기념법회 및 수록대제를 개최한다.



청양군 미흔남녀 짝 찾기의 날 개최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11월 17일 청양군 미흔남 20명과 대성사 인연맺기 여성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짝 찾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동국대·자제대학 학술교류 김희욱 동국대 총장은 11월 13일 대만 자제공덕회 산하 대학인 자제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었다.



티베트 청소년들에 장학금 기부 김재웅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대표는 11월 14일 티베트난민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아름다운운행에 기부했다.

동련 3대 이사장에 성행 스님



동련 제3대 이사장에 의양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이 취임한다. 현재 성행 스님은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전담단 초대 단장 및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8대 회장을 맡고 있다. 취임식은 11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며 임기는 3년이다. 성행 스님은 "주력사업으로 어린이 포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출범한 청소년 법인 '예그리나' 활동을 강화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인권상에 밀양 송전탑반대위 선정

불교인권위원회(공공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불교인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법산)는 2013년 11월 13일 제19회 불교인권상에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를 선정했다. 불교 인권위는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지구의 미래와 후손들의 생명을 위해 온몸을 불태우는 어르신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사,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와 한국전력의 횡포에 맞서 힘겨운 생존권투쟁을 벌이고 있는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를 제19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20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 불교인권위원회 창립23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열린다.

<부고> 최정희 현대불교신문사 편집이사 모친상

최정희 현대불교신문사 편집이사 모친 김상림 여사께서 11월 15일 오전 7시 별세했다. 발인은 11월 17일 오전 7시에 치뤄졌다.

“교육적 니즈 찾는 공격적 전략 강구중”

제 6대 위덕대 총장에 취임한 김정기 신임 총장



“다가오는 2018년에는 고교졸업자가 대학입학정보보다 적어지는 등 신입생 유치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학입학생들이 부족해지면 지역 대학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처합니다. 저희 위덕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중위권 대학으로 치고 올라서지 못하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을, 재학생 충원을, 취업을 등 핵심적인 대학교육지표를 끌어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니즈(Needs)를 찾아가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2~3년내 도약 못하면 존폐 위기 중장기 발전 2020 프로젝트 마련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계획중이다. 이 계획안에는 서남수 前 총장이 진행하던 2016 대학특성화대체를 개선한 것이다. 김 총장은 “2016계획은 포항·경주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자동차·철강·에너지 특성화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추진하는 ‘중장기발전 2020’에는 현실에 맞게 위덕대가 타 대학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외에도 김 총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성인학습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마련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한 질문에 김 총장은 “현 정부의 교육부 정책은 대학구조조정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대학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추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 대학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대학생태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잘 연계한다면 대학간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에 찬언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위덕대는 진각종이 설립한 종합대학으로서 정체성 부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담대중사의 ‘진리탐구’ ‘인격도야’ ‘이타자리’를 건학이념으로 해서 설립한 대학인 만큼 지역사회 중심에서 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 받으면서,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김정기 총장은?

1956년 경북 영천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와 행정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총무과장, 경상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심의관, 교육복지심의관,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장, 평생학습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보, 선문대학교 부총장을 거쳤으며,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 한국교육원공제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새로운 정진의 길, 전법에 더욱 나설 것”

열린선원 법현 스님, 11월 10일 금동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삼존불 점안법회에서는 이재오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불교와의 인연담이 소개됐다. 사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불상들이 이날 점안된 삼존불.

서울 은평구 재래시장인 역촌중앙시장에 자리잡은 저자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11월 10일 석가모니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원로 원법 스님, 윤사 수진스님, 조계종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등 50여 스님들과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재오 국회의원, 김미경 서울시의원 등 200여 대중이 동참

해 성황을 이뤘다. 열린선원은 그동안 삼존불을 모시고 있었으나 한 포교원 운영자가 불보살님을 다른 곳에 양도하게 된 사연을 접하고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이 원력을 내 새로 모시게 됐다. 점안법회는 제1부 복장 점안식과 제2부 불상점안 의식 및 헌공 그리고 제3부 봉안법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법현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저자거리에서 더욱 더 열심히 수행·전법하겠다고 새로운 포교원력을 다졌다. 법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정진의 길로 이끄시는 부처님이 도량에 나누시게 된 것 같아 삼존불을 모셨다. 저자거리에서 더욱 더 열심히 수행·전법하겠다”고 말했다.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축사로 “늘 저자거리에서 수행과 전법의 법현 스님은 부루나의 후예로서 태고종을 넘어 한국불교의 큰 사표”라고 말했다.

“육바라미 실천, 정신근육 단련”

첫 서양인 비구니 텐진 빠모 스님 초청법회



“이 세상을 헬스클럽으로 보라. 운동 기계들은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힘들게 디자인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육바라미를 통해 정신적 근육을 단련시켜나가면 된다.”

첫 서양인 비구니 텐진 빠모 스님이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법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주제로 열린 법회였다.

텐진 빠모 스님은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묻는다”며 살고 죽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날 법문의 주요 골자는 내적으로 충실한 삶이 후회없는 인생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수행을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육바라미의 실천이라는 것이었다.

스님은 “육바라미는 삶에서 풍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며 “가령 보시는 손을 여는 것이고 이는 곧 마음을 연다는 뜻이다. 세상에 다가가는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이여 “정진

‘잘살고 잘죽는 법 논하다’

인육바라미 통해 내적 성장 중요

보시 통해 마음열고 세상에 다가가

바라미 실천은 후회없는 인생 기본

또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매순간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바꾸는 것이 곧 수행이다. 인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흠없고 청정한 불성이 있으므로, 바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넓혀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청정한 불성에 합침을 다가가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인육을 이야기하면서도 “인육바라미를 닦는 장소는 가정과 사회, 모두의 일상이다.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드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닦혀도 매순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청중들을 격려했다.

법회 내내 스님은 “부처를 이루는 방법은 명상 수행과 지혜 닦기에 있지 않다. 여러 면이 모여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바라미의 실천이 더해질 때 진정한 불자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라미의 실천을 강조했다.

스님은 “생각, 의견, 감정,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것도 당신을 대표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고 탄탄하게 지속되는 나 또한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알기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텐진 빠모 스님은 영하 35도로 내려가는 히말라야 설산에서 12년간 치열하게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여성 수행자를 위한 단구 가탈 링 사원을 설립하여 티베트 불교에서 비구니 전통을 되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05년 달라이 라마에 의해 ‘6인의 서양 비구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08년에는 티베트 여성 수행자 최고 지위인 제존마 지위를 받기도 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부회장 정덕 스님, 부회장 겸 운무사 주지인 일진 스님, 사카티타 코리아 상임공동대표 본각 스님, 조계종 전 문화부장 효탄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과 원불교 교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진로·적성·상담 안내

C.A.C 분석서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담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흥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프로필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미래예측학 박사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숨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문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금요일(오후 5시 ~ 7시)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5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12월 5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12월 6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